

내포문화 콘텐츠 구축에 관한 단상

오석민 | 충남역사박물관장

● 최근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고, 이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국가의 법정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예산확보 등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청 이전이라는 대역사를 완료하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행렬은 증가일로이다. 그 가운데 관광객이 차지하는 숫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포문화에 대한 기초연구는 미진하기만 하다. 다만 기왕에 연구가 진행된 분야에 반복적으로 여러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을 뿐이다. 아직까지 '내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조사가 없음은 내포문화에 대한 연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를 편찬하는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분야에 따라서 기존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어서 그 결과물을 정리하면 되는 분야와 주제도 있겠지만, 아직 첫 단추도 꿰지 못한 분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지, 시군지, 읍면지 발간을 통하여 역사적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을까?

혹자는 최근 지역의 역사를 아우르는 연구결과와 집대성, 예컨대 시·도지, 또는 시·군



지, 나아가서 읍·면지를 간행하는 작업을 강조하기도 한다. 미시적인 연구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섞인 셈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대를 아마 추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왕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책자는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일 뿐이었다.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분야의 경우에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연구비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힘든 경우가 태반이고, 설령 연구비에 연연하지 않는 연구자라 할지라도 1년에도 미치지 않는 조사기간에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더 부정적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군지 등은 전문적인 논문이 아니고, 다만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소개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연구자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런 경우에도, 그들의 작업은 새로운 연구를 위한 예비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할애된 지면의 제약도 있고, 또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실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미진한 분야는 다소의 식견만 갖춘 전문가라면 어렵지 않게 지목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내포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미진한 분야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보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지역 연구에 있어서 분야별 편차는 심각할 정도이다. 그 지역을 특징짓는 분야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혹자는 연구비의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하여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분야, 예컨대 사회적 관심이 적은 분야를 피하려는 연구자들의 자세 또한 지적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면 좋은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기꺼이 맡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집성(集成) 또는 대계(大系)와 같은 책자의 발간은 그 이후의 작업이다. 그 이전에 마치 특정한 사냥감을 바로보는 맹수처럼 필요한 작업을 짚어 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바라보는 한 연구의 편향성은 심각할 정도이다. 기초조사의 미흡함을 내포에서 출생한 대학자 추사 김정희의 잘 알려지지 않는 유적들을 사례로 들면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추사는 고향에서 무엇을 했을까?

충남 예산 태생의 추사 김정희만큼 많이 회자되는 인물도 드물다. 국내에서의 활동보다 연경을 출입하면서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청나라의 고증학을 만개시킨 학자로 칭송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석학에 대한 기념비적 논고를 남겼고,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도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청나라의 이름난 학자들조차 海東第一通儒, 즉 해동에서 제일 가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 칭송했던 것이다. 실사구시의 학풍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니, 그 후대의 정치·사상·예술계의 대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미진한 구석이 있다. 그는 과연 고향땅 충청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막상 충청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응당 느끼는 의문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경향 각처의 전문가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정작 도민에게 궁금한 점은 고향 땅에서의 행적일지 모르겠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는 유적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1976년 성역화 사업 당시 무분별하게 매립된 왕자뫼王子池가 대표적이다. 추사고택 인근의 왕자뫼는 조선시대 지리지와 고지도마다 거의 빠짐없이 확인되는데, 또한 조선전기 예산이 배출한 명필 자암 김구 선생이 운명한 별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추사의 큰댁이 위치한 서산 음암면 유계리의 한다리 마을의 바위에는 추사 선생이 쓴 것이라 전하는 취석(醉石)이라는 글씨가 전한다. 경주 김씨 입향조 김연을 안고 친정으로 낙향한 상산황씨의 묘비는 추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당해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받은 글씨이다. 그 묘역은 개심사 본전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다. 개심사가 본래 한다리 김씨의 원찰이었기 때문이다. 서산 대산읍에도 1826년 추사 선생이 충청우도의 암행어사로 왔을 때 세금을 경감하여 준 공적을 기리는 영세불망비가 전한다. 지역사와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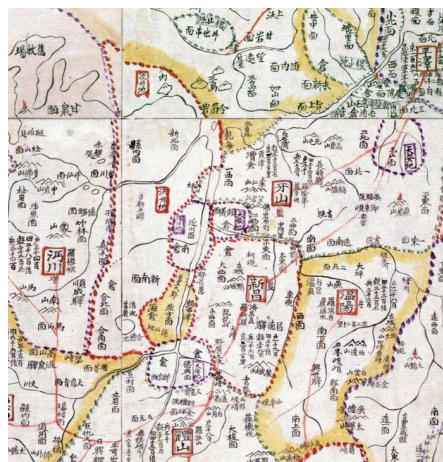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필자가 단독으로 확인한 것들이 아니다. 현재 곳곳에 이러한 사실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향토사가들이 소리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정보들인 것이다.

혹자는 과연 그러한 작은 사실들을 찾는 작업이 본질적인 학문의 목적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은 의문이 있다. 내포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을까? 현재까지 이중환의 『택리지』 등 문헌사료에서 찾아낸 몇몇 기록에 의존하여 되풀이하여 언급하면서 내포의 유래와 권역을 의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포의 지명유래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포는 현재의 무한천과 삽교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하천 구간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그곳에 조선 초 충청도 고을의 조세를 받는 조세창고를 두었다가 얼마 후 하류로 이전하였다. 그런 연후에도 이곳 내포를 출입하는 뱃길은 계속 이어졌다. 지금의 삽교천 연안은 백제시대부터도 광범위한 간척사업이 진행되던 곳이었고, 이에 따라 조선 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던 들판이었다. 조선 후기 고지도에 '주위가 백리에 이르는 넓은 들판'이라고 표기된 것도 이 때문이며, 주변의 고을들은 농경지의 확보를 위하여 앞다투어 간척사업에 힘을 쏟았고, 이러한 연유로 삽교천 연안의 땅은 고을 경계와 멀리 떨어진 홍주, 천안, 덕산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된 경우가 많았다.



조선후기 고지도 청구요람(삽교천 부분)

이 들판에서 대규모로 생산된 미곡은 뱃길을 통하여 포구에서 반출되었다. 또한 육로를 통해서 지금의 홍성이나 당진, 서산·태안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의 된고지 나루를 건너야 했다. 한마디로 충남의 서북부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내포까지 배를 타고 가거나, 그곳의 나루를 건너야 했던 것이다. 지역을 출입하는 창구였던 하천의 이름이, 그곳을 통



하여 왕래했던 고장을 통칭하는 지명으로 자리매김했던 셈이다.

그런데 내포의 지명유래는 추사고택 인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들을 발굴하는 연구 작업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지에서 광범위하게 탐문을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과제마다 접근법을 달리 하여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지명유래에 대한 접근은 지역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포지역을 특징짓는 문화의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다. 다른 지역에는 없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요소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내포를 특징짓는 주제들은 무엇일까?

어떤 지역이나 나뉠에 고유한 지역색이 있기 마련이다. 남쪽의 제주도는 신들의 천국이라 한다. 무속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신들과 그들을 모시는 신당 때문이다. 검은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돌담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내포 지역을 특징짓는 역사적 전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내포불교의 전통과 미학

다소 진부하겠지만, 시대적으로 앞선 주제로는 백제를 대표하는 내포불교의 전통을 거론하고 싶다. 한강 유역에서 웅진과 사비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내포는 백제왕조에 있어서 일종의 전초기지과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일차 방어선이면서, 동시에 뱃길을 통한 선진문물 도입창구의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안과 서산의 마애삼존불이나 봉산의 사면석불 등은 그러한 백제시대 국제교류의 전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유적들은 시·군지 등에 맡겨두기보다는, 예컨대 '내포불교의 전통과 미학'이라는 주제로 연구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전하지 않는 중고제 판소리

내포불교에 대한 연구는 그나마 많이 진척된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내포지역에 유행하였던 판소리 중고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판소리가 독립적인 연행 장르로 독립하던 시기에, 전라도 동쪽 지방의 동편제와 서쪽 지방의 서편제와 더불어



경기·충청 일원에서는 중고제 가락이 지배적이었다. 선대의 전설적인 명창 '결성의 최선달'과 '해미의 고수관'의 소리를 이어서, 금강 유역의 김성옥 가계와 서산 지방의 심정순 가계는 중고제 판소리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지금 생존한 일부 주민들의 기억에도 남아 있고, 그 일부는 유성기 음반으로도 전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 전승이 단절된 상태이다. 최근 일부 국악인과 전문연구자, 그리고 향토사기들의 노력으로 일부 소리가 복원되었고, 옛 명창들의 유적도 확인되고 있다. 충남 일원의 민요와 가락이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고제 소리는 온전하게 복원되어야 할 유산이다.

내부 보부상의 전통과 문화유산

조선후기 상업이 발전하면서 소매 기능과 말단의 수집상 역할을 담당했던 보상과 부상들은 점차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정부에 의하여 상무사라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고을 단위로 부상과 보상들을 상무좌·우사로 묶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포지역에서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예덕상무사라는 이름으로 예산·덕산·당진·면천 등지의 여러 고을을 아우르는 상무사 조직이 출현하였고, 홍주·결성·대흥 고을을 묶는 원흥주육군상무사 조직되었으며, 서천·한산·비인·홍산 등지에서는 특산물 모시를 거래하는 저산팔읍상무사가 나타났다. 현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록을 신창·아산·온양 등을 묶는 상무사 조직도 있었다. 상무사 관련 유물로는 내포지역의 상무사와 더불어 경상도 창녕의 상무사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창녕을 포함하는 다른 지역의 유물들은 대부분 한 고을 단위로 결성되어 있다. 여러 고을을 단위로 묶었다고 한다면, 모종의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포 보부상들은 한말 변혁기에 정치적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논의는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논의가 가능한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포교회의 전통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1831년 조선교구 창설을 전후한 시기, 중국 동북부를 거쳐 조선의 국경 도시인 의주 - 평양 - 서울로 이어지는 통로를 전파되었다. 그러나 박해가 거듭되면서 정부의 국경 경비가 강화되었고, 새로운 경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개척된 새로운 루트가 바로 동양 전도의 거점이던 마카오에서 상하이를 거쳐 한반도 중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서해 루트였다. 내포는 의주를 통한 서북육상루트에 이어 선교사들의 입국하는 제2

의 비밀 통로로 이용되었다.

더욱이 내포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천주 신앙 소공동체로 의 교회가 창설된 지방이다.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출신의 이존창은 서울에서 권일 신의 문하생으로 있는 동안에 천주 신앙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그 후 스승의 권고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뒷날 내포교회로 통칭되는 여사울 천주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영향은 빠른 속도로 내포 각지로 파급되었다.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성직자는 김대건 신부, 두 번째 최양업(崔良業) 신부는 모두 내포 태생이다. 김대건은 지금의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최양업은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출신이며, 이들과 같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갔다가 1838년에 불행히 병으로 사망한 최방제도 홍주에 살던 양반의 자손이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연구는 교회사 연구자들에 의하여 축적되고 있으며,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사실 종교적 배경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기는 하지만, 내포교회사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지역연구의 표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간단없는 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정리함과 동시에 활용사업까지 추진하였다. 내포에 대하여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을까? 앞에서 언급한 주제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이러한 집요한 작업을 기다리는 연구과제들이다. 이 외에도 내포에는 홍주의병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남당학파의 연원과 사상, 서해안 포구의 상업활동 등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제들이 널려 있다. 연구를 집대성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묶는 작업에 앞서서,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를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